

노후의 부양유형과 주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aracteristics Related to Preferences on Living Arrangement and Residence
of the Elderly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광 인 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Kwak, In-Suk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Preferences on living arrangement and residence of the elderly depend on various changing factors as they get old. Among those factors, predictable and crucial factors are the condition of their health and spouse. Thus, this study is focused on living arrangement and the residential preference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ir health and existence of a spouse. A sample of 500 elderly aged over 65 is analyzed by χ^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45.2% of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prefer 'living apart from their children but living close by'. And 19.8% of the elderly want to 'live with their children'. Second, the elderly with a spouse and the elderly who live apart from their children tend to prefer living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광인숙 (kwak1526@yahoo.co.kr)

*** 교신저자: 홍성희 (hsh@kmu.ac.kr)

independently. Third, the elderly with good health living in single-family houses and the elderly with high self-esteem tend to prefer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urth, the elderly with health problems who have generous allowances and live in a city tend to prefer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Fifth, factors such as gender, age, condition of health, allowances, living regions, type of house, self-esteem influence residential preferences of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Older men with more allowances, in good health, living in row house and apartment, in a mid-size city tend to prefer living in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Key Words : 주거선호(residential preferences), 노후부양(living arrangement), 거주지(living region), 자존감(self-esteem)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2%에 달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10.3%에 이르렀다(통계청, 2009).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가구의 구성비가 눈에 띄는데, 노인 1인 가구 및 노인부부로 구성된 노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에 44.9%에서 2005년에는 51.1%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이러한 노인가구의 증가현상은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노부모와 자녀세대가 각각 사생활을 중시하며,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노년층에서도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이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경제력을 갖추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허락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양유형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개인부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는 다

른 어느 시기 못지않게 긴 기간으로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인의 상황적 변화에 따라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노년기 생활실태와 생활설계에 대해 역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상황에 따른 부양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상황적 특성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건강상태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인 만큼 고령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보살핌이나 부양이 불가피한데,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건강문제인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2007)의 조사결과도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준다.

또 노년기의 상황 중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배우자의 사망이다. 노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이 중요한 시기이다. 더구나 고령화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부부의 상호의존의 시기와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즉, 노인들의 부부관계가 다른 가족관계적 측면이나 노인 자신의 개인적 특성보다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혜자·김윤정, 2004). 이처럼 부부관계와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발생하게 되는 배우자의 사망은 일생의 가장 큰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부양의식이 자녀 부양으로부터 자기부양으로 변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노후의 건강상태나 배우자의 존재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거나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부양유형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이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독립적으로 살 곳을 결정해야 한다. 즉,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노후에 살 주거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건강상태와 일상생활능력 등의 문제로 자신의 집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Pynoos et al., 1992). 또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규모와 주거기능에 대한 요구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 주택의 대안으로 규모를 줄이거나 본인의 주거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고령화가 더 진전되고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기본적인 생활과 부양을 대행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후부양에 대한 선호와 이에 따르는 주거선호는 노후의 가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상황적 변화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의 존재여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의 존재에 따른 노후부양유형과 노후주거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건강상태와 배우자관계를 고려한 노후부양유형과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는 장기화된 노

년기를 대비하는 중노년층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족관계와 건강, 재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노년기 주거계획에 대한 대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노후부양서비스와 노인주거 공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부양유형

노후부양은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유형이다. 즉, 자녀동거여부에 따른 노후부양유형에는 비교적 건강하여 많은 의료서비스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개인 또는 노인부부가 스스로 부양을 해결하는 개인부양이 있으며, 가족원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는 3세대 동거부양 혹은 자녀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개별부양이라고 하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부양과 구분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부양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보편화되지 않거나 서비스부양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가 높지 않으므로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와 선택은 대부분 개별부양 중 개인부양 또는 자녀부양을 선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노후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유료노인시설이 생겨나고 있으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노후 주거유형으로 유료양로시설, 노인아파트, 노인촌락, 노인연립주택,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등 양질의 서비스를 갖춘 다양한 시

설을 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문윤상, 1996). 그러나 서비스부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요구수준은 높지만 실제 시설에의 입주의사는 비교적 낮다는 연구 결과(김순미 등, 2004)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 자신의 선택의사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노인의 개인적 상황과 여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상태이다. 노년기에도 부부가 동거하며 건강할 경우 자녀와 별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지만(오찬옥 등, 1993) 건강이 악화되면 노인전용주거나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서비스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던 연구(김미희, 2006)결과에서 시사되는 것처럼 노년기에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는 부양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직접 부양유형을 계획할 수 있으나,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면 노인의 의사나 선호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노인시설의 선택이 불가피해진다(곽인숙, 1998).

배우자의 존재 또한 노년기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될 때는 서비스부양에 대한 의존도나 선택의사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없이 혼자 거주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인주거에 입소해 시설부양을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오찬옥·이연숙(1993)의 연구나 중년층의 경우도 노후주거로서 부부가 동거할 때에 비해 혼자될 때 노인주거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한 조성희·이태경(2005)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부양유형을 선택할 때 배우자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은 기대여명이 짧아지는 노년기에는 정서적으로 풍부한 상호작용을 선호하게 되며,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가 중요해진다는 Carstensen (1993)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부양유형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독립적 부양 또는 개인부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주거유형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 노후주거선호

노후주거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설주거, 다양한 노인주거대안, 그리고 기존의 주택에 계속 사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 중 노년기에 어떤 유형의 주거에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노후주거선호이다.

다양한 노인주거유형의 중요성은 시기에 따라 또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노년기의 주거는 단순히 주택유형이나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년기의 주거가 일상생활능력, 건강상태,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윤현희·김명자(1994)에 따르면 노인들은 상실감, 건강문제, 가족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므로(Golant, 1982)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부양의사 등에 따라 본인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거나 시설이 완비된 유료노인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여러 가지 선택 및 대안에 대한 고려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의 노인시설주거는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 양로원이나 요양원등을 의미하였으며, 실제로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초기 노인전용주거시설은 부양자녀가 없는 무의탁노인이나 빈곤계층의 노인을 위한 시설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입소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이해 부족, 질 낮은 서비스, 전통적 가치관과 함께 시설입소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산층을 위한 유료 노인 시설이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어 노인 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인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한다'는 원칙(aging in place)을 강조하는(Pynoos, 1995)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노인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여명이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측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시설보호가 입소노인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장기보호에 따르는 대처방안의 미흡, 비영리단체의 운영비용 등의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설주거의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건물을 수리하거나 생활욕구에 맞추어 개조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도 하며 수리 및 개조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하기도 한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고 시설주거 입소에 따르는 지역이동이나 주거이동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연령층보다 크고 광범위하다. 특히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환경에서 노인시설주거로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주며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광범위한 이동의 경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노인시설주거를 선택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정서적, 물질적 부양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녀와 심리적으로나 거리상으로 멀어지는 상황을 결정하는 것

이며,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Goldschneider, 1989). 또 노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주거이동을 수반하게 되는데, 주거이동은 지금까지 맺어온 사회적 관계와 안정된 사회조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므로 노인에게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변화 또한 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의 환경 적응행위의 결과인 물리적 건축환경은 여러 자극물의 복합체로서 인간의 지각과 인지 및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생활해오던 주거환경을 벗어나 이동한 노인시설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지되거나 새로운 주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는 경우 불안, 짜증, 분노 등의 감정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었을 경우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상실되어 도피증,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고 가족 간의 친밀도가 저하될 수 있다(홍형옥 등, 2004).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노인의 강제이동에 관한 Altman 등의 연구(1985)는 주거이동 후 노인의 정서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서승희(1994)는 스스로 선택하였거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고 하였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으로의 이동은 거주자의 복지감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주거로서 독립적인 주거 또는 시설주거를 선택하는 문제는 주거유형의 선택보다는 노인의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선호와 필요성의 인식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선호나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거유형을 선택한다면 노후주거의 안정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노후부양유형 및 주거 선호의 영향요인

선행연구에서 노후부양유형이나 주거 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가족요인 등이 있다.

노후의 주거선호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버타운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조희자, 2001; 이민경 외, 2004, 소연경 등, 2005)가 있는 반면 남성이 더 실버타운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인다는 결과(박영옥, 2001; 김순미외, 2004)도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버타운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는 연구(김기수, 1995)와 반대로 고연령층이 실버타운에 대해 덜 호의적이거나 관심이 적다는 연구 결과(조희자, 2001; 소연경 등, 2005)가 대조를 이룬다. 또한 노후부양에 대한 김정석(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보다 자신에게 있다는 독립적인 부양의식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학력, 직업, 소득, 자산이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김순미 외, 2004; 이민경 외, 2004; 권오정, 2005), 이 중에서 가계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설입소 시 보증금, 관리비 등을 지불할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인수의 연구(2003)에서도 주된 수입원이 있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며 독립적인 생활이나 시설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김혜연·김성희(1999)의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은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반면 비취업노인은 개별부

양을 선호하였다. 취업은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직결된 요인으로, 취업노인은 자신의 부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입원과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따르는 유료시설부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선희(1999)는 자녀와 동거하는 부양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주지를 들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경숙(2003)은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노부모는 고향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이 세대 간 지리적 격리현상을 가중시켰으며,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의 부양유형에 차이를 보이는데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보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약할 것으로 보았다. 박신영 등(2006)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비율이 농촌고령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의사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독립생활을 규제한다. 노인들에게는 개인의 신체적인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정경희, 2001) 건강상태가 부양유형과 주거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리적 요인으로서 자존감과 노후부양유형을 다룬 김혜연 등(199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개별부양을 선호한 반면 자신과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낮은 자존감을 보일수록 시설부양을 선호하였다.

가족은 원활한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을 통해 노인은 다양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년기에는 생활범위가 가족에게로 축소되는 시기이므로 가족 간의 유대와 지지가 심리적 복지와 전반적인 안녕에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전길양 등, 2000).

가족의 지지 중에서도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한데, 자녀의 부양의식이 희박해지고 실제 동거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한편 노부부만 남게 되는 노년기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존재함으로써 부부간에 심리적 유대나 신뢰를 지각하고 필요시에 배우자에 의한 적절한 도구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노년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성희 등(2005), 김미희(2006)의 연구에서도 노후에 부부가 동거할 경우보다 혼자될 경우 노후주거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유무에 따라 주거선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노후에 자녀와 가족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는 가족요인 중 동거 가능한 자녀를 포함한 가족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인수(2003)의 연구에서는 동거가능 자녀수가 적을수록 별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가 적어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가족수가 적을수록 노후주거로서 노인주거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녀를 포함한 동거가족수도 노인의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내용은 노인들의 노후의 부양유형과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체적,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가 점차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후부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의 미래 상황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변화를 건강상태의 변화와 배우자의 존재여부로 보았다. 또 노후주거선호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한 상황과 나쁜 상황,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 혼자 남은 상황으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노후부양유형 선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노후부양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노인의 노후주거 선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노인의 노후주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 조사도구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65세 이상의 노인 52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한 질문조사의 요령을 숙지하게 한 후 질문지에 의한 개별면접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조사대상노인의 연령집단은 노인의 인구분포와 유사한 비율로 맞추어 층화표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노후부양과 주거선호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와 중소도시, 읍면동지역의 3개 권역을 모두 포함하였다. 수집된 질문지중 부실 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500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주거선호를 비롯한 주거실태와 선호하는 부양유형, 주거선호 및 부양선호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거공간특성변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형태, 자녀동거여부, 가족수, 월평균 가계총소득, 용돈을, 주거공간특성으로는 거주지역과 주택형태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08년 4월 4일부터 26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의 부양선호 및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차분석과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2.6%, 여성 57.4%로 여성이 약간 더 많이 분포되었다. 연령은 70-74세가 가장 많은 39.2%, 65-69세는 30.0%, 75-79세는 17.8%이며,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13.0%에 달했다. 조사대상자 중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이 75.4%이며, 24.8%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0.6%로 절반보다 약간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무학이 18.8%, 중학교졸업과 고등학교졸업이 각각 15.8%,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은 9.4%로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여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6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금 건강하지 못한 편이지만 약간의 보조기구로 혼자 생활하고 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29.4%, 건강하지 못하여 자주 일상적 행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6.4%,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사대상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형태로는 노인부부가구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인 중 1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가 26.4%, 노인 1인 가구가 23.0%였고, 노인부부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16.2%였다. 본 조사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자녀동거비율(42.6%)이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지역으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노인의 평균가족수는 2.67명으로 전국평균인 3.38명 (통계청, 2007)보다 적은데 이는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월평균 가계총소득은 15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 월 376만원 (통계청, 2007)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노인의 용돈은 전혀 없는 경우부터 한달에 평균 200만원까지 다양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22만 4천원 정도였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읍면지역이 40.0%, 대도시지역은 19.0%였다. 주거환경적 특성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6.4%,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16.4%로 중소도시 및 농촌주택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0)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13	42.6
	여성	287	57.4
연령	65-69세	150	30.0
	70-74세	196	39.2
	75-79세	89	17.8
	80세 이상	65	13.0
직업유무	무	377	75.4
	유	123	24.8
배우자유무	무	247	49.4
	유	253	50.6
교육수준	무학	94	18.8
	초등학교졸	201	40.2
	중학교졸	79	15.8
	고등학교졸	79	15.8
	전문대이상	47	9.4
건강상태	아주 건강	312	62.4
	비건강, 독립가능	147	29.4
	비건강, 약간 도움	32	6.4
	일상생활 도움	9	1.8
거주형태	노인 1인가구	115	23.0
	노인부부가구	172	34.4
	자녀동거가구1(노부부+자녀)	81	16.2
	자녀동거가구2(노인1인+자녀)	132	26.4
자녀동거여부	자녀와 동거	213	42.6
	노인가구	287	57.4
거주지역	읍면지역	200	40.0
	중소도시	205	41.0
	대도시	95	19.0
주택형태	단독주택	286	57.2
	다세대/연립주택	82	16.4
	아파트	132	26.2
		평균	표준편차
가족수(명)		2.67	1.54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155.23	158.22
용돈(만원)		22.43	23.44

2. 노후부양유형 선호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부양유형의 선호 경향을 살펴보면, 선호하는 유형으로는 ‘자녀와 따로 살지만 가까운 거리에 살고 싶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표 2〉 노후부양유형 선호

(N=500)

			빈도	백분율
노후 부양 유형	개인부양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	71	14.2
		자녀와 가깝게 살고 싶다	226	45.2
	자녀부양	꼭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99	19.8
	조건부 자녀부양	건강이 나빠지면 함께 살고 싶다	76	15.2
		혼자 되면 함께 살고 싶다	28	5.6

45.2%였으며, 다음으로는 ‘꼭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경우가 19.8%,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경우가 15.2%, 거리와 상관없이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경우는 14.2%였다. 노후에 부부 중 1인이 사망하여 ‘혼자될 경우 부양받기’를 선호하는 경우는 5.6%였다.

따라서 자녀와는 독립적으로 노인들만의 별거를 선호하는 개인부양 선호 노인은 59.4%이며, 건강상태나 배우자 사망 등 상황에 따른 동거를 희망하는 조건부 자녀부양 선호 노인은 20.8%, 상황과 무관하게 자녀와 동거를 선호하는 자녀부양 선호 노인은 19.8%로, 자녀와 별거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노인이 더 많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는 노인들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의 부양유형선호와 관련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노후의 부양유형선호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녀와 따로 사는 개인부양을 선호하는 집단, 자녀와 꼭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자녀부양 선호 집단, 건강이 나빠지거나 홀로 되는 특정 상황에 자녀와 동거를 고려하겠다는 조건부 자녀부양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표 3 참고).

노인의 성별에 따라 노후부양유형선호에 차이를 보여 남성은 개인부양유형을 더 선호하였

으며, 여성은 꼭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자녀부양유형이나 조건부 자녀부양유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유무에 따라 노후부양선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부양이나 조건부 자녀부양을 선호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부양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p<.001$). 교육수준에 따른 노후부양선호의 차이는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자녀부양과 조건부 자녀부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조건부 자녀부양을,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부양을 더 희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인 부양책임의식을 보인 김정석(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서도 노후부양선호에 차이를 보여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은 노후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개인부양이나 조건부 자녀부양을 선호하였으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은 노후에도 자녀부양을 더 희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부양유형을 앞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노인들은 자녀부양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별거를 희망하는 개인부양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집단이 자녀소득으로 인해 월

〈표 3〉 노후부양선호와 관련변인

(N=500)

		노후부양선호			χ^2
		개인부양 빈도(백분율)	자녀부양 빈도(백분율)	조건부 자녀부양 빈도(백분율)	
성별	남성	137(64.3)	36(16.9)	40(18.8)	N.S.
	여성	160(55.7)	63(22.0)	64(22.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34(54.3)	68(27.5)	45(18.2)	18.475***
	배우자 있음	163(64.4)	31(12.3)	59(23.3)	
교육수준	무학	52(56.5)	20(21.7)	20(21.7)	17.217*
	초등학교졸업	105(52.2)	47(40.0)	49(24.4)	
	중학교졸업	45(57.0)	15(19.0)	19(24.1)	
	고등학교 이상	93(73.8)	17(13.5)	16(12.7)	
자녀동거 여부	현재 자녀와 비동거	186(64.8)	23(8.0)	78(27.2)	63.758***
	현재 자녀와 동거	111(52.1)	76(35.7)	26(12.2)	
월평균 총가계소득	50만원 미만	107(68.2)	17(10.8)	33(21.0)	35.113***
	50-100만원 미만	33(61.1)	5(9.3)	16(29.6)	
	100-200만원 미만	57(56.4)	17(16.8)	27(26.7)	
	200-300만원 미만	41(52.6)	23(29.5)	14(17.9)	
	300만원 이상	59(53.6)	37(33.6)	14(12.7)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주택	136(63.6)	48(22.4)	30(14.0)	10.664**
	단독주택	161(56.3)	51(17.8)	74(25.9)	
거주지역	읍면지역	113(56.5)	36(18.0)	51(25.5)	10.705*
	중소도시	116(56.6)	47(22.9)	42(20.5)	
	대도시	68(71.6)	16(16.8)	11(11.6)	
소 계		297(59.4)	99(19.8)	104(20.8)	
		개인부양	자녀부양	조건부 자녀부양	F 값
연령		72.04 A	73.88 B	72.27 A	4.020**
가족의 지지		24.53 A	25.25 AB	25.99 B	3.028*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평균 가계 총소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의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노후부양유형으로 조건부 자녀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거주자는 개인부양과 자녀부양 모두 높은 선호를 보였다.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노후부양선호에 차이를 보여 대도시지역에서는 개인부양을 선호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자녀부

양을 희망하며, 읍면지역에서는 조건부자녀부양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부 거주자보다 시부 거주자가 더 독립적인 부양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정석(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이 적은 집단이 개인부양이나 조건부 자녀부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는 자녀부양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될수록 자녀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의 지지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노인집단은 자녀부양이나 조건부 자녀부양을 선호하였으며, 가족의 지지정도를 낮게 인지하는 집단은 개인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후부양유형선호에 대한 영향 요인

노인의 부양유형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노후부양선호가 세 집단이므로 자녀부양을 희망하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개인부양희망 집단과 조건부 자녀부양희망집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배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항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Logistic회귀모형은 Wald 통계량 125.04, 자유도 30, χ^2 통계량 967.784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노후부양유형선호 중 개인부양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유무와 자녀동

거여부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부양보다는 개인부양을 2.029배 더 선호하였다. 이는 유배우노인은 자녀보다 배우자와의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녀부양의 필요성을 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와 현재 동거하는 노인이 별거하는 노인에 비해 개인부양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315배 높았다. 즉,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이미 노후부양유형으로 자녀부양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노후부양유형선호 중 조건부 자녀부양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의 자녀동거여부, 자존감, 가족의 지지 등이었는데,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은 별거하는 노인들에 비해 조건부 자녀부양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097배 높았는데, 이로써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자녀부양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노후부양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조건부 자녀부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902배 높았으며, 자존감이 낮은 노인들이 누군가에게 의존할 경향이 높으므로 노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가족의 지지를 높게 인지할수록 조건부

<표 5> 노후의 주거선호

(N=500)

		빈도	백분율	
노후 주거 선호	건강할 경우	현재의 주택	436	87.2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	38	7.6
		노인전용주거시설	26	5.2
		기타	0	0
	건강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주택	246	49.2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	53	10.6
		노인전용주거시설	177	35.4
		기타	24	4.8
	혼자될 경우	현재의 주택	229	45.8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	46	9.2
		노인전용주거시설	212	42.4
		기타	13	2.6

자녀부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1.0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후부양선호에는 자녀동거여부와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가족요인이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대체되거나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의 심리적 지지나 비물질적 지원은 노후 생활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중요성이 특히 노년기에 더 커진다는 김정석(2001)의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노후 주거선호

노년기의 상황이 건강상태와 배우자유무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후의 주거선호에 대한 실태와 분석에서는 건강할 경우, 건강하지 않을 경우, 혼자 된 경우로 각각 나누어 파악하였다(표 5 참조). 미래에 건강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택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87.2%로 대부분이 현재의 주택을 선호하였으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7.6%, 노인 전용주거시설을 희망하는 경우는 5.2%였다.

그러나 미래에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선택한 비율이 35.4%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주택을 선택한 비율은 49.2%로,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선호가 대폭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일반 주택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10.6%,

〈표 4〉 노후부양유형선호에 대한 logistic 분석

(N=500)

	개인부양 선호			조건부 자녀부양 선호		
	P.E.	S.E.	Exp(B)	P.E.	S.E.	Exp(B)
성별(남성)	.047	.305	1.049	.324	.370	1.382
연령	-.041	.024	.960	-.037	.030	.963
교육수준	.032	.035	1.033	.007	.043	1.008
직업유무	-.258	.337	.773	-.411	.405	.663
배우자유무	.707*	.333	2.029	.548	.410	1.729
가족수	-.112	.140	.894	.052	.194	1.054
자녀동거여부	-1.155**	.464	.315	-2.328***	.635	.097
건강상태	.141	.190	1.152	.226	.237	1.254
월평균 가계소득	-.001	.001	.999	-.001	.001	.999
용돈	-.001	.006	.999	-.011	.008	.989
거주지(읍면지역)						
중소도시	-.204	.312	.815	-.284	.369	.753
대도시	.292	.414	1.339	-.515	.544	.598
주택형태(단독주택)	-.119	.296	.888	.437	.366	1.547
자존감	-.010	.043	.990	-.103*	.053	.902
가족의 지지	-.007	.029	.993	.094**	.037	1.098
상수	4.829*		1.677	2.423		2.728
Log Likelihood						926.642***

* p<.05 ** p<.01 *** p<.001

준거집단: 노후에 자녀부양을 희망하는 집단

<표 6> 노후주거선호(건강할 경우)와 관련변인

(N=500)

		노후주거선호			χ^2
		현재의 주택 빈도(백분율)	다른 일반주택 빈도(백분율)	노인전용주거시설 빈도(백분율)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154(81.5)	21(11.1)	14(7.4)	8.916*
	건강함	282(90.7)	17(5.5)	12(3.9)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주택	174(81.3)	27(12.6)	13(6.1)	14.430***
	단독주택	262(91.6)	11(3.8)	13(4.5)	
소 계		436(87.2)	38(7.6)	26(5.2)	

* p<.05 *** p<.001

기타 유형을 선택한 경우는 4.8%로서,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노인전용주거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되었을 때 현재의 주택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45.8%, 노인전용주거시설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42.4%로 두 가지 유형의 선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선호율은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의 선호율에 비해서도 더 높았다. 따라서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는 건강악화로 인한 생활보조의 필요성 뿐 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심리적 고립감과 부담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오찬옥 등, 1993; 조성희 등, 2005; 김미희, 2006)에서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유무에 따라 노인 주거에 대한 거주의사가 변화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노후주거선호와 관련변인의 관계를 건강상태와 배우자 존재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미래에 건강할 경우의 노후주거선호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재 건강한 노인들은 노후에도 현재의 주택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90.7%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건강하지 않은 노인은 다른 일반주

택이나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선호하였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노후주거로서 다른 일반주택이나 노인전용주거시설을 더 선호했으며, 이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노인들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비율이 91.6%로 공동주택 거주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후에 건강하지 않을 경우의 주거선호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7). 앞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건강하지 않을 때의 노후주거로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은 현재의 주택이나 다른 일반주택을 선호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노인전용주거시설을 더 선호하였다. 또 현재 건강한 노인들은 앞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에도 현재의 주택이나 다른 일반주택과 같이 일반주택을 더 선호한 반면 현재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은 노인전용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주택형태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노인은 앞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졌을 때 다른 주택이나 노인전용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단독주택 거주 노인은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에도 현재의 단독 주택에 계속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 읍면 지역 거주 노인은 앞으로 건강

〈표 7〉 노후주거선호(건강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변인

(N=500)

		노후주거선호			χ^2
		현재의 주택 빈도(백분율)	다른 일반주택 빈도(백분율)	노인전용주거시설 빈도(백분율)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06(42.9)	25(10.1)	116(47.0)	9.716*
	배우자 있음	140(55.3)	28(11.1)	85(33.6)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72(38.1)	16(8.5)	101(53.4)	27.322***
	건강함	174(55.9)	37(11.9)	100(32.2)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주택	93(43.5)	26(12.1)	95(44.4)	8.636*
	단독주택	153(53.5)	27(9.4)	106(37.1)	
거주지	읍면지역	113(56.5)	16(8.0)	71(35.5)	12.729*
	중소도시	94(45.9)	25(12.2)	86(41.9)	
	대도시지역	39(41.1)	12(12.6)	44(46.4)	
월평균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66(42.0)	12(7.6)	79(50.3)	26.085**
	50-100만원 미만	25(46.3)	5(9.3)	24(44.4)	
	100-200만원 미만	53(52.5)	8(7.9)	40(39.7)	
	200-300만원 미만	51(65.4)	8(10.3)	19(24.4)	
	300만원 이상	51(46.4)	20(18.2)	39(35.4)	
용돈	10만원 미만	52(38.5)	21(15.6)	61(45.9)	20.423**
	10-20만원 미만	60(50.4)	12(10.1)	47(39.5)	
	20-30만원 미만	48(50.5)	10(10.5)	37(39.0)	
	30만원 이상	82(57.7)	10(7.0)	50(35.2)	
소 계		246(49.2)	53(10.6)	201(40.2)	

* p<.05 ** p<.01 *** p<.001

상태가 나빠질 때에도 현재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생활환경을 바꾸지 않으려는 의사를 보였으나, 중소도시 및 대도시 거주자는 현재의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이나 노인전용시설 거주를 선호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도 노후주거선호에 차이를 보여 소득이 1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였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집단이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료노인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선

행연구(김순미 외, 2004; 이민경 외, 2004; 권오정, 2005)와 상반된 것인데, 본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유료 노인전용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무료 또는 실비노인시설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용돈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노인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10만원 미만이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노인전용주거시설이나 다른 주택으로의 이사를 희망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현재 배우자가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중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계소득과 용돈이 적은 집단의 노인은 건강상태

(표 8) 노후주거선호(혼자 될 경우)와 관련변인

(N=500)

		노후주거선호			χ^2
		현재의 주택 빈도(백분율)	다른 일반주택 빈도(백분율)	노인전용주거시설 빈도(백분율)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68(36.0)	15(7.9)	105(56.1)	21.130***
	건강함	161(51.8)	31(10.0)	119(38.2)	
자녀동거 여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음	143(49.8)	16(5.6)	128(44.6)	16.369***
	자녀와 동거하고 있음	86(40.4)	30(14.1)	97(45.5)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주택	82(38.3)	28(13.1)	104(48.6)	14.804**
	단독주택	147(51.4)	18(6.3)	121(42.3)	
거주지	읍면지역	111(55.5)	11(5.5)	78(39.0)	17.810**
	중소도시	82(40.0)	27(13.2)	96(46.9)	
	대도시지역	36(37.9)	8(8.4)	51(53.7)	
월평균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76(48.4)	12(7.6)	69(44.0)	30.124**
	50-100만원 미만	29(53.7)	2(3.7)	23(42.6)	
	100-200만원 미만	51(50.5)	4(4.0)	46(45.5)	
	200-300만원 미만	30(38.5)	11(14.1)	37(47.5)	
	300만원 이상	43(39.1)	17(15.5)	50(45.5)	
교육수준	무학	54(58.7)	3(3.3)	35(38.1)	20.881**
	초등학교졸업	89(44.3)	19(9.5)	93(46.3)	
	중학교졸업	24(30.4)	14(17.7)	42(51.8)	
	고등학교 이상	62(49.2)	10(7.9)	54(42.9)	
소 계		229(45.8)	46(9.2)	225(45.0)	

** p<.01 *** p<.001

가 나빠졌을 때 현재의 주택보다는 노인전용주거시설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자 될 경우 노인들의 주거선호를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현재 건강하다고 한 노인들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 될 경우에도 현재의 주택에 계속 살기를 희망한 반면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은 노인전용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현재의 자녀동거여부 또한 미래의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은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 앞으로 혼자될 경우에도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현재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

립적으로 살고 있는 노인들은 앞으로도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앞으로 혼자 될 경우에도 현재의 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다른 주택이나 노인전용주거시설로 이주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혼자되었을 때 현재의 주택에, 중소도시 거주자는 다른 일반주택이나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도시 거주자는 노인전용주거시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거주지역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노후주거선호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노후주거선호는 일관성 있

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200만원 미만인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계의 노인이 현재의 주택을 선호하였고 200만원 이상의 경우 노인 전용주거시설이나 다른 일반주택을 더 선호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으로 중간 정도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이 앞으로 혼자 될 때 노인전용주거시설이나 다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으며, 교육수준이 아주 낮은 무학이거나 아주 높은 고졸 이상의 노인은 현재의 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노후에 혼자 될 경우 건강하지 않거나,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조건부 자녀부양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노후주거로서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후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유무를 중심으로 건강할 경우, 건강하지 않을 경우, 혼자될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선호하는 주거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세 가지 유형의 독립변수에 따라 각기 logistic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표 9 참고). 그러나 노후부양유형 중 자녀부양을 희망하는 노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주거선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제외한 개인부양과 조건부 자녀부양을 희망하는 노인들만을 대상(401명)으로 log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조사대상 노인들 중에는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들이 약 49%에 달해,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의 노후주거선호는 분석하지 않았다.

첫 번째 분석으로 노후에 건강할 때 선호하는 주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Logistic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은 Wald 통계량 159.611($p < .001$), 자유도 15, χ^2 통계량 24.957($p < .01$)로 나타나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형태와 자존감이었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노후주거로서 노인주거전용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단독주택 거주노인에 비해 .463배 높았으며, 노인의 자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1.105배 높았다.

둘째, 노후에 건강하지 않을 때의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용돈, 거주지 등이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1.074배, 용돈이 많을수록 1.014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읍면동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2.052배 노인주거전용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노후에 혼자 될 때의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용돈, 거주지, 주택형태, 자존감 등이었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노인주거전용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0573배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1.054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1.45배), 용돈이 많을수록(1.018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1.682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단독주택 거주노인에 비해(.644배), 자존감이 높을수록(1.086배) 노인주거전용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으로 노인의 상황별 주거선호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노후에도 건강할 경우는 가계소득이나 자녀동거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여건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나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또 건강할 경우에 비해 건강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보다 다양한 요인이 노후주거선호에 영향을 미

〈표 9〉 노후의 주거 선호에 대한 logistic 분석

(N=401)

	건강할 경우			건강하지 않을 경우			혼자 될 경우		
	P.E.	S.E.	Exp(B)	P.E.	S.E.	Exp(B)	P.E.	S.E.	Exp(B)
성별(남성)	-.554	.356	.574	-.087	.239	.917	-.558*	.248	.573
연령	-.002	.033	.998	.071**	.023	1.074	.053*	.023	1.054
교육수준	.143	.135	1.154	.053	.085	1.054	.143	.088	1.154
직업유무	-.346	.435	.708	-.218	.270	.804	-.284	.277	.753
배우자유무	-.218	.416	.804	-.465	.282	.628	.389	.295	1.475
자녀동거여부	-.197	.674	.821	.196	.429	1.216	.379	.441	1.460
가족수	-.083	.222	1.210	.106	.146	1.111	.047	.151	1.049
건강상태	.191	.235	.657	.300	.175	1.349	.371*	.182	1.450
월평균 가계소득	.000	.001	1.000	.000	.001	1.000	-.002	.001	.998
용돈	-.003	.007	.997	.013*	.006	1.014	.018**	.006	1.018
거주지(읍면지역)									
중소도시	.106	.396	1.111	.329	.263	1.390	.520*	.271	1.682
대도시	.444	.470	1.559	.719*	.342	2.052	.418	.349	1.518
주택형태(단독주택)	-.771*	.356	.463	.026	.249	1.026	-.440	.259	.644
자존감	.100*	.053	1.105	.031	.036	1.031	.082*	.037	.995
가족의 지지	.044	.031	.159	.007	.023	1.026	-.005	.023	.976
상수	-.554	2.893		-8.191	2.052		-7.607***	1.762	
Log Likelihood	152..552***			503.580***			485.151***		

* p<.05 ** p<.01 *** p<.001

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앞으로 더 고령화되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연령이나 건강상태, 용돈 등 다양한 요인이 주거선호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연령이 많은 노인들이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고령화에 따라 시설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주거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혼자된 상황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주거전용시설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노인주거전용시설이 건강이 악화될 때를 대비한 주거대안이라기 보다 외로움을 해소하고 동년배와 어울리기 위해 집단생활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보다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용돈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도 의외의 결과일 수 있으나, 동거하는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계소득보다는 용돈이 주거선호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노인들의 미래 노후 부양유형과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미래 상황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변화를 건강상태의 변화와 배우자의 존재여부로 보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상황과 나쁜 상황,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 혼자 남은 상황의 주거선호를 각각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부양선호 실태로서 자녀와 별거를 선호하는 개인부양 선호 노인이 59.4%이며, 건강상태나 배우자 사망 등 상황에 따른 자녀 동거를 희망하는 조건부 자녀부양 선호는 20.8%, 상황과 무관하게 동거를 선호하는 자녀부양 선호 노인은 19.8%로 노후에도 자녀와 별거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노인이 더 많았다. 또 노후부양유형으로서 개인부양을 선호하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으며, 고학력자이거나, 현재 자녀와 별거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집단이며,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녀부양을 선호하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저학력이며,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가계소득이 높으며, 중소도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부양유형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배우자유무와 자녀 동거유무, 가족의 지지, 그리고 노인의 자존감 등이 확인됨으로써 부양유형은 주로 가족과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본인의 심리적 요인이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자녀와의 동거하는 노인은 별거노인보다 개인부양이나 조건부 부양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이나 의사가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후주거로서 미래에 건강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택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87.2%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선호가 대폭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또 혼자되었을 경우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선호율이 더 높아져 배우자유무와 건강상태가 노인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후주거 선호는 배우자유무와 건강상

태, 가계소득 및 용돈, 현재 거주 주택과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한 결과 노후에 건강할 경우 주택형태와 자존감이, 노후에 건강하지 않을 때는 연령, 용돈, 거주지 등이, 노후에 혼자 될 때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용돈, 거주지, 주택형태, 자존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에 혼자 될 경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주거와 생활방식이 제한됨으로서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선택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후부양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변화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개인부양에 대한 선호가 높고, 특히 건강할 경우 노후주거로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노인이 기존의 주거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의 생활의 질이나 복지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주거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나 보수비용을 적절히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에 건강하지 못할 경우와 혼자 될 경우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전용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안임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생활기능을 지원해주는 주거 뿐 만 아니라 건강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주거, 문화

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이 완비된 시설 등 다양화된 규모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노인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인전용주거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주택공급자의 공급의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노후에 혼자되었을 경우 현재의 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생활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넷째, 연구 결과 조사대상노인들은 현재의 상황과 노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노후부양과 주거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미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의 연령대가 광범위하여 연령차가 많이 나므로, 연령대에 따른 건강상태와 배우자 유무, 자녀의 부양의식 등에 따라 상이한 주거에 대한 선호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별 주택보급계획이 정책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노후부양과 주거선호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개인적 상황과 구체적인 상황과 제한 요소들을 고려한 주거공간의 선택가능성, 접근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노후부양유형의 선호는 자녀의 부양의식이나 자녀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노부부의 공동의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부부와 자녀를 모두 포함시켜 자녀의 부양의사와 부양능력, 부모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의 동질성 또는 상이성 등을 고려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박인숙(1998).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 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6(11), 43-59.
- 2) 권오정(2005).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2), 21-30.
- 3) 김미란, 이경훈(2008). 노인을 배려한 공동주택 설계 시 중요요소 도출에 대한 의식조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9), 27-35.
- 4) 김미희(200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년층의 노후 주거선호-광주지역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7(1), 117-126.
- 5) 김순미, 홍성희, 김혜연, 김성희(2004). 봉급생활자의 은퇴설계: 노인 부양으로서 유료 노인시설 선호 및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42(5), 175-192.
- 6) 김영주, 권오정, 박남희(2006).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실태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79-93.
- 7) 김정석(2001). 노후부양주체로서의 노인, 가족, 사회/ 국가의 역할: 중년층의 노후부양태도와 준비실태를 중심으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8) 김정석(2001).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 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9) 김태현, 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 10)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11) 모선희(1999). 노인과 가족: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 외 편. 한국 노인의

-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81-119.
- 12) 문윤상(1996). 우리나라 노인산업의 발전 방향.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 의암출판.
 - 14) 박명옥(2001). 유료노인 복지시설 입주의식 및 선호도. 청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박신영, 최은희, 지은영(2006).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주거욕구분석. Huri Focus 14, 1-25.
 - 16) 박재규(2005). 노인소비자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입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경영대 석사학위논문.
 - 17) 보건복지부(2009). 노인복지시설현황. <http://www.mw.go.kr>.
 - 18)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19) 서승희(1994).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41-49.
 - 20) 석희옥(2001).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의식 조사: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1) 소연경, 허선구(2005). 실버타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관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45-154.
 - 22) 오찬옥,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 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9(1), 35-45.
 - 23) 이민경(2003).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연구- 중·노년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4) 이성재, 채준섭, 유응교(2008). 전북 고령 진입층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1), 65-72.
 - 25) 이연숙, 김미선, 이정화(2007). 주거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따른 도시 노인의 주거선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7(5), 99-106.
 - 26) 이인수(2003).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2), 121-132.
 - 27) 이정숙, 이인수(2005). 노년기 건강관리행동과 사회경제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253.
 - 28) 이해자, 김윤정(2004). 부부관계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4), 197-214.
 - 29) 전길양, 송현애, 고선주, 김일명(2000).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풍요로운 노후 꾸기기-. 한국노년학 20(1), 69-91.
 - 30) 정경희(2001). 노년기의 건강.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31)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32) 조성남(2001). 노인의 건강과 가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33) 조성희, 이태경(2005). 예비노인의 노후상황별 주거환경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4), 9-16.
 - 34) 통계청(2009).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 www.kostat.go.kr.
 - 35) 통계청(2007). 2007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www.kostat.go.kr.
 - 3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www.kostat.go.kr.
 - 37)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www.kca.go.kr.

- 38) 홍성희, 김순미, 김혜연(2006). 남성 봉급 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생활 문제 인식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4(3), 95-115.
- 39) 홍형옥, 이경희, 최정신, 김대년, 조재순, 권 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 인력연구원. 서울 : 지식마당.
- 40) 홍형옥(2005).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 수리 및 개조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3(2), 11-22.
- 41) Altman, I. and Werner, C.(1985). Home Environments. Plenum.
- 42) Goldschneider, C. (1989).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Older Population: Constraints, Preferences, and Power,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New York : Westview Publication C.
- 43) Pynoos, J., Cohen, E., Davis, L., & Bernhardt, S(1987). Home modifications improvements that extend independence. In Reginer, V., and Pynoos, J, Housing for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York : Elsevier, 277-303.
- 44) Schooler, K.(1980), Effects of environment on morale, *The Gerontologist* 10, 4-197.
- 45) Watson, W. H.(1980), Stress and Old age.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Book.
- 46) Wells, I. and MacDonald, G.(1981). Interpersonal Network and post relocation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Gerontologist* 21(2), 177-183.
- 투 고 일 : 2009년 10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0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23일